

한국문화교류 소식

45호 2022년 9월 15일 발행·발행인 위호인

(사)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 International Center for Korean Culture(ICKC)

04173 서울시 마포구 삼개로 16, 408호(도화동, 근신빌딩 신관)

전화 02-2285-1070 팩스 02-2285-5070 메일 hangyobon@gmail.com 홈페이지 www.ickc-seoul.net

특집: 현장의 눈

“2022 동물사랑·생명존중 시나리오 공모전” 시상식 성황리에 열려...

공동 수상작 3편, 상금 각 2천만 원씩 수여

지난 9월 20일(화) “2022 동물사랑·생명존중 시나리오 공모전”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ICCK (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가 주최하고 대한태권도협회, 서울특별시수의사회가 후원한 이번 공모전은 응모작이 약 90여 편에 이를 정도로 성황을 이루었고, 치열하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3편의 작품이 영예의 공동 수상작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부득이 참석 못 하신 회원 여러분께 시상식 내용과 현장 분위기를 아래 기사를 통해 전달해 드리오니, 수상자들을 함께 축하하고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격려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_ ICCK 사무국

(사)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이하 ICCK)가 주최하고 대한태권도협회(KTA)와 서울특별시수의사회가 후원한 “2022 동물사랑·생명존중 시나리오 공모전” 시상식이 지난 9월 20일(화)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국화실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번 공모전은 ‘반려동물 양육 인구 1,500만 시대’

를 맞아 좋은 영화를 통해 우리 사회에 생명을 존중하는 문화를 대중적으로 널리 확산시키자는 취지로 마련되었다. 지난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응모 기간 동안 약 90여 편의 작품이 응모될 정도로 어느 유수의 시나리오 공모전에 못지않은 열띤 관심과 호응이 있었고, 8월 25일 수상작 발표에 이어 이날 시상식으로 공모전 행사는 마무리 되었다.

사회를 맡은 이효진 ICKC 운영위원(전 주한호주대사관 호한재단 사무총장)의 내빈 소개로 시상식이 시작되었다. 후원단체인 서울특별시수의사회에서 최영민 회장이 직접 참석했고, 대한태권도협회에서는 개인 사정으로 불참한 양진방 회장 대신 이종천 사무2처장이 참석했다. ICKC 고문인 김용구 (주)신동 회장과 ICKC 전 이사장인 박갑수 서울대 명예교수도 자리를 빛냈고, 이밖에 ICKC 측에서 위호인 이사장, 박의근 재정위원장 겸 동물복지위원장, 전영섭 감사, 박원출 감사, 조춘연 이사, 강석재 이사, 이효정 운영위원, 정순영 운영위원, 박창식 전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또한 본 공모전의 심사위원장인 지상학 전 한국영화인총연합회 회장과 심사위원인 방순정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이사장, 정한용 배우도 함께 시상식을 축하했다.



▲ 사회를 맡은 이효진 ICKC 운영위원의 내빈 소개



▲ 박의근 ICKC 재정위원장 겸 동물복지위원장이 일어나 내빈께 인사하고 있다. ICKC 전 이사장인 박갑수 서울대 명예교수(왼쪽)도 특별히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내빈 소개에 이어 위호인 ICKC 이사장이 개회사를 겸해 참석하신 분들께 감사인사를 전했다. 위호인 이사장은 개회사에서 본 공모전의 취지와 경과를 설명하고 지상학 심사위원장을 비롯 심사위원들의 수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표했다. 이어서 수상한 작가들을 축하하고 수상한 시나리오 제작품이 성공적으로 영화나 드라마로 제작될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응원을 내빈께 부탁드리며 개회사를 마쳤다.

이어서 지상학 심사위원장이 심사위원을 대표해 심사 경위 및 소감을 발표했다



▲ 위호인 ICKC 이사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다. 1995년 동아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한 지상학 심사위원장은 <로봇 태권 V>, <이장호의 외인구단>, <칠수와 만수>, <우담바라>, <학생부군신위>, 드라마 <왕초> 등 여러 유명 작품의 각본을 쓴 한국 영화계의 대표적인 시나리오 작가로 전 한국영화인총연합회 회장, 전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이사장 등을 역임했다. 그리고 방송정 현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이사장, 전 한국영화아카데미 원장인 유영식 영화감독, 전 국회의원이자 한국의 대표적인 배우 중 한 명인 정한용 배우 등 그 어떤 공모전보다도 경쟁한 영화인 네 분이 함께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였다.



▲ 공모전 심사 경위 및 소감을 발표하는 지상학 심사위원장(전 한국영화인총연합회 회장)

지상학 심사위원장은 전체적으로 훌륭한 작품들이 많아서 심사하기가 힘들었고 작품의 완성도, 대중성, 영상화 가능성

등을 두루 고려하여 3차에 걸친 치열한 토론과 합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세 편의 작품을 공동 수상작으로 선정했다고 심사경위를 밝혔다. 그리고 당초 당선작 1편 상금 5천만 원, 우수상 1편 상금 1천만 원으로 공고하였으나, 오늘 수상한 세 편의 작품의 점수차가 소수점 이하로 근소하고 세 작품 모두 저마다 개성이 뚜렷하고 작품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세 편 모두를 공동 수상작으로 선정하고 총 상금을 공평하게 배분했다고 부연 설명했다. 추후 영상화가 될 경우 당선작 상금에 상당하는 상금 차액을 수상자에게 지급할 것을 주최 측과 약속했다고 밝히고 수상자들을 다시 한 번 축하하고 앞으로의 활동을 격려하며 심사 소감을 마쳤다.



시상식 현장 영상은 ICKC 공식 유튜브 채널 “Taekwondo Animal TV”(태권도애니멀 TV)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즐겁게 시청하시고 채널 구독 부탁드립니다.



▲ <고양이 식당>으로 수상한 옥경선 작가에게 위호인 ICKC 이사장이 상패와 상금 2천만 원을 수여했다.

다음으로 이번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수상자 시상식이 이어졌다. 작품명 가나다 순서에 따라 첫 번째 수상자로 <고양이 식당>의 옥경선 작가가 시상대에 올랐다. 시상은 주최 측 위호인 ICKC 이사장이 맡아 상패와 상금 2천만 원을 옥경선 작가에게 수여했다. 옥경선 작가는 자신의 작품을 좋게 평가한 지사항 심사위원장과 세 분 심사위원, 그리고 뜻 깊은 공모전을 주최한 ICKC 측에 감사드리며, 자신을 늘 응원해 주는 친구들과 가족에게도 감사드린다고 말하며 수상 소감을 마쳤다.



▲ 옥경선 작가의 수상 소감 발표



▲ <우, 리, 지나>로 수상한 손상민 작가에게 이종천 대한태권도협회 사무2처장이(왼쪽) 상패와 상금 2천만 원을 수여했다.



▲ 손상민 작가의 수상 소감 발표

두 번째로 <우, 리, 지니>로 수상한 손상민 작가가 시상대에 올랐다. 시상은 이번 공모전을 후원한 대한테권도협회의 이종천 사무2처장이 했고 상패와 상금 2천만 원을 수여했다. 가족 모두와 함께 참석한 손상민 작가는 수상 소감으로 지금까지 생계형 글 쓰기를 했지만 앞으로는 좀 더 자신감 있게 창작 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좋은 기회를 만들어 준 주최 측과 심사위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 서울특별시수의사회의 최영민 회장(오른쪽)이 <퍼스트 독(대통령의 개)>로 수상한 콘텐츠공장 팀에 상패와 상금 2천만 원을 수여했다.

마지막 수상자로 콘텐츠공장 팀의 지성원, 표재민 작가가 나왔다. 콘텐츠공장 팀은 <퍼스트 독(대통령의 개)>로 수상했으며 시상은



▲ 콘텐츠공장 팀 지성원 작가(오른쪽)와 표재민 작가(왼쪽)의 수상 소감 발표

후원단체인 서울특별시수의사회의 최영민 회장이 맡아 동일하게 상패와 상금 2천만 원을 수여했다. 콘텐츠공장 팀은 계속해서 시나리오를 써 왔던 노력이 보상받은 것 같아 뿌듯하고 감사하며, 수상한 시나리오가 꼭 영화화되면 좋겠다는 바람을 밝히며 수상 소감을 마쳤다.

수상자 시상 및 수상 소감을 끝으로 시상식 공식 순서가 끝나고 이어서 축하만찬이 늦게까지 이어졌다. 참석자들 모두 수상작품이 좋은 영화로 제작되고 수상작가들도 앞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활동하기를 한마음으로 바라며 축하 분위기로 즐겁고 화기애애했던 시상식이 막을 내렸다.



▲ “2022 동물사랑·생명존중 시나리오 공모전” 수상자와 시상자, 심사위원 기념 촬영. 앞줄 왼쪽부터 표재민, 지성원, 옥경선, 손상민 작가. 뒷줄 왼쪽부터 최영민 서울특별시수의사회 회장, 위호인 ICKC 이사장, 방순정 (사)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이사장, 지상학 심사위원장, 정한용 배우, 이종천 대한태권도협회 사무2부장.



“2022 동물사랑·생명존중 시나리오 공모전” 시상식 개최사



위 호 인 ICKC 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위호인입니다. 오늘 “2022 동물사랑·생명존중 시나리오 공모전” 시상식에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ICKC가 주최하고 대한태권도협회와 서울특별시수의사회가 후원한 이번 시나리오 공모전은 우리 사회에 생명을 존중하는 문화를 대중적으로 널리 알릴 수 있는 좋은 영화 제작이라는 취지로 시작되었습니다.

저희 ICKC는 2011년 3월에 창립한 이래 한국어와 태권도를 중심으로 다양한 문화 사업을 그동안 수행해 왔습니다. 2021년인 작년부터는 전 세계 태권도 수련생들에게 인성형성을 함양기 위해 동물사랑·생명존중 운동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먼저 ICKC 내에 동물복지위원회를 신설했고, 동물복지위원장으로 박의근 재정위원장을 추대하였습니다. 동시에 대한태권도협회, 서울특별시수의사회와 함께 공동으로 동물사랑·생명존중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월 27일 대한태권도협회 사무실에서 양진방 태권도협회 회장, 최영민 서울수의사회 회장 그리고 저와 박의근 동물복지위원장이 함께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본격적으로 사업을 진행해, 먼저 지난 3월에 “반려동물 영상공모전”을 개최하여 공모전 수상작 시상과 함께 유튜브 채널 “태권도 애니멀 TV”를 개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능교육의 협찬으로 전국 1만여 개 태권도장에 발송할 동물사랑·생명존중 캠페인 포스터 2만 매, 스티커 25만 매를 제작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ICKC의 사업에 큰 힘이 되어 주시는 대한태권도협회, 서울특별시수의사회 그리고 재능교육 측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4월부터 두 번째 사업으로 “2022 동물사랑·생명존중 시나리오 공모전”을 개최하였습니다. 작품 접수 기간인 7월 초부터는 뜨거운 여름 날씨만치 작품 응모 열기가 매우 높았습니다. 예상을 뛰어 넘는 약 90편에 이르는 많은 작품이 응모되었고 8월 초부터 1, 2, 3차에 걸친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심사는 전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이사장과 한국영화인총연합회 회장을 역임하신 지사항 작가님을 위원장으로 모시고 현 시나리오작가협회 이사장이신 방순정 님 그리고 영화 감독이시며 전 영화아카데미 원장이신 유영식 교수님, 전 국회의원이며 유명 배우이신 정한용 님 4분께서 심사를 맡아 주셨습니다.

본래 당선작 1편, 우수작 1편해서 총 2편을 선정할 계획이었지만 오늘 수상하시는 세 분의 작품이 소수점 차이밖에 없는 동점 수준이어서 심사위원단에서 만장일치로 세 작품을 공동 당선작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용은 잠시 후 지사항 심사위원장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최근 <오징어게임>의 에미상 수상과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인기가 상징적으로 보여주듯, 대한민국의 우수한 콘텐츠가 곧 세계적인 콘텐츠로 각광받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번 공모전에서 수상한 시나리오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즐기고 사랑하는 수준 높은 영화나 드라마 콘텐츠로 제작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앞으로 수상작품의 영화화라는 무겁고 힘든 작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께서 수상 작품의 영화화 작업을 적극 성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소중한 시간과 노력으로 훌륭한 시나리오를 응모하고 이렇게 수상까지 하게 된 작가 분들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영광스러운 앞날을 기대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분들께서도 수상자를 아낌없이 격려해 주시고, 저녁식사도 맛있게 하시면서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동물사랑·생명존중 시나리오 공모전”

공동 수상작 및 작가 이력(작품명 가나다 순)

『고양이 식당』

성명 옥경선

- 주요이력
- 2014. 뮤지컬 <꽃신> 작곡/작사
 - 2016. 뮤지컬 <조니하트> 작곡/작사
 - 2016. 뮤지컬 <리틀잭> 작곡/작사
 - 2018. 연극 <진실×거짓> 각색
 - 2019. 뮤지컬 <난설> 작곡/작사



『우, 리, 지니』

성명 손상민

- 주요이력
- 2016.01. 신춘문예 <잃어버린 계절> 부산일보 당선
 - 2017.07. <뮤지컬 창수책방> 경남스토리랩 공모전 선정
 - 2018.11. 경남스토리공모전 <뮤지컬 광복군아리랑> 대상 선정
 - 2021.06. 문신100주년 예술동화공모 <세계적 조각가 문신> 대상 선정
- 저서 <휘리릭 초등 4문장 글쓰기>, <9살에 처음 만나는 김구> 외 7권

『퍼스트 독(대통령의 개)』

성명 콘텐츠공장 팀(지성원, 표재민)

- 주요이력
- 現 빅편치픽처스(마동석) 소속 감독/작가
 - 前 강제규필름, Sidus HQ, 플레이어(이정재) 전속작가
 - 미스터리공포영화 <순이(캐봉예정)> 각본/감독
 - 블랙코미디 <접전(2019)> 기획/제작/각본/감독
 - 공포영화 <므이(2007)> 기획/각본
 - 하드보일드액션 <수(2007)> 각본
 - 12부작 웹드라마 <에브리데이뉴페이스(2016)> 극본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물 복지·문화사업 소개

서울특별시 송파구에서 추진하고 계획 중인 “동물 복지·문화사업”을 소개합니다. 송파구는 석촌호수, 올림픽공원 등 인간과 반려동물 모두에 친화적인 자연환경 및 시설을 바탕으로 ‘송파 반려동물 한마당’(2019), ‘송파 반려동물 ON세상 페스티벌’(2021) 등 행사를 개최하고 반려동물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지난 7월 1일 민선 제8기 송파구청장으로 취임한 서강석 구청장은 구청 내 동물복지팀과 함께 반려견놀이터 운영, 유기동물 구조 및 보호, 동물보건복지센터 건립 계획 등 전국 어느 지자체보다 더 적극적으로 선진적인 반려동물 문화 정착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서강석 구청장과 송파구의 동물 복지·문화사업을 응원하고 앞으로의 행보를 기대합니다. _ ICKC 사무국

동물 복지·문화사업 (추진)

□ 송파 반려견놀이터 운영

- 목 적: 반려견 동반 이용주민 편의 제공과 주민인식 개선 등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정착에 기여
- 위 치: 탄천유수지(가락동 508) ※ 2022. 1. 27. 개장
- 규 모: 1,221㎡(370평) ※ 중·대형견: 200평, 중·소형견: 170평
- 운영시간: (평일) 13:00~20:00, (주말, 공휴일) 11:00~18:00
- 주요시설: 놀이공간, 그늘막, 벤치, 어질리티, CCTV 등

□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송파구민 한마당 축제

- 시 기: 2023. 10. 중
- 장 소: 탄천유수지 반려견놀이터 일대
- 참가대상: 송파구 반려동물 주민 등 약 1,000여명
- 내 용: 반려동물 달리기대회, 건강상담, 무료미용, 동물보호 주민교육 등

□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운영

- 장 소: 관내 소공원 및 근린공원 등 25개소
- 운영방안: 급식소 당 담당봉사자(캣맘)를 지정하여 위생 관리에 철저
 - 구청: 급식소 제작 및 설치, 자원봉사자 선발 및 교육, 사료공급
 - 캣맘: 급식소 관리, 급식소 주변 청결유지, 중성화 협조
- ※ 급식소 설치로 인한 반복민원 발생 시 해당지역 급식소 철거

□ 길고양이 TNR(trap-neuter-return)

- 대 상: 공원·길가에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길고양이
- 방 법: 지정병원에서 중성화 수술
- 처리비용: 200천원/두

□ 유기동물 구조·보호관리

- 대 상: 유기된 개, 부상 당한 길고양이 등
- 방 법: (사)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 위탁 관리
 - 위탁기간: 3년(2021. 1. 1.~2023. 12. 31.)
 - 유기동물 20일간 공고 및 분양(미분양 시 인락사)
- 관리방법: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유기동물 처리결과 상시 확인
- 비 용: 201천원/두(유기동물보호관리) ※ 현안사항: 다친 개, 고양이 구조 시 시간이 다소 소요

동물 복지·문화사업 (계획)

1. 송파구동물보건복지센터 설립

반려동물권 증진과 반려동물 보건복지 수요를 충족하고 선진반려동물문화의 저변확대와 정착을 위해 「송파구동물보건복지센터」를 설립 운영하고자 함



▲ 오금동 소재 반려견 관련 개러리아 운영 건물

□ 사업개요

- 추진목표
 - 반려동물권 보장, 애견관련 분쟁조정·상담, 유기견 등 보호·치료·분양
 - 반려견 사회화교육, 입양교육 등 프로그램 연중무휴 운영
- 주요시설(기능): 동물병원, 상담시설, 유기견보호·분양, 교육장, 사무실 등

□ 시설확보(운영)방안

- 관내 지역에 비교적 큰 규모의 건물 1개 동을 임차하여 운영
 - ※ 구청에서 신축 건물 건립 시 민원발생 소지가 있는 만큼 건물을 임차하여 운영한 후 신축부지 확보방안 추후 검토

□ 세부추진내용

- 반려동물 진료·상담: 동물병원을 유치하여 저렴한 비용 또는 구비로 기본적인 진료와 상담 등 서비스 제공

- 애견관련 분쟁조정 및 상담: 별도 상담실을 마련하여 전화 또는 방문 등으로 애견관련 분쟁 조정
- 유기견 보호·분양, 각종 프로그램 운영 등

2. 반려견 순회 놀이터

다양한 볼거리와 함께 반려견 순회 놀이터를 운영하여 반려가족에게 즐거운 추억을 선사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위 치: 관내 근린공원 등
- 기 간: 매년 봄, 가을(총 4회)
- 규 모: 660㎡(200평)
- 주요내용: 반려견 순회 놀이터 설치 및 각종 프로그램 운영



□ 추진계획

- 반려견 순회 놀이터 이동형 시설물 설치
 - 설치 시설물: 인조잔디, 이동식펜스, 그물망, 안내판, CCTV, 놀이기구 등
- 반려동물 관련 각종 프로그램 운영
 - 프로그램 예시: 어질리티 쇼, 애견미용, 행동상담, 목줄 만들기, 포토존 등
- 전문 안전요원 운영 및 상해보험 가입 등 안전관리 철저

□ 기대효과

- 상설 놀이터 추가 설치에 대한 주민 요구 일부 충족
- 다양한 프로그램과 볼거리로 반려가족에게 즐거운 추억 선사

3. 반려견 행동교정 아카데미

문제 행동을 가지고 있는 반려견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1:1 행동교정 아카데미를 운영하여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안전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

□ 추진방향

- 전문가의 교육을 통해 반려견 행동 문제로 인한 이웃 간 갈등 해소
- 개물림 등 안전사고의 매년 증가에 따른 구민 불안감 완화
- 사고 발생 및 이웃 간 마찰로 인한 양육포기 및 유기견 발생 방지

□ 사업개요

- 기 간: 2023. 3. ~ 11.
- 장 소: 선정된 신청자 자택 또는 원하는 장소
- 대 상: 관내 행동교정이 필요한 동물등록 된 반려견과 견주
- 내 용: 행동교정 전문강사의 1:1 반려견 문제행동 분석 및 솔루션 제시 · 교육
- 교육횟수: 1가구당 2회(일주일 간격)

□ 운영방법

- 전문가가 신청자에 대한 면접을 통해 양육태도 개선 의지가 있는 견주를 대상으로 선정
- 상 · 하반기 총 50가구 선정 후 견주가 강사와 1:1로 교육일정 조정

□ 기대효과

-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 갈등(물림사고, 소음 등) 완화
- 반려문화 확산을 통한 생명존중 및 동물보호 의식 고취

4. 취약계층 반려동물을 위한 우리동네 동물병원

취약계층 반려동물에게 예방접종 등 다양한 의료 서비스를 지원하여 동물복지 및 취약계층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 사업개요

- 기 간: 연중
- 위 치: 관내 지정된 우리동네 동물병원
- 내 용: 취약계층에 동물 의료 서비스 비용 지원(필수+선택진료)
 - 필수진료: 기초검진, 예방접종, 심장사상충 예방약(190천원 이내)
 - 선택진료: 검진으로 발견한 질병 치료비 또는 중성화 수술(200천원 이내)※ 보호자 본인 부담금 1만원 별도

□ 추진계획

- 우리동네 동물병원 참여 희망 업체 모집 · 지정
 - 필요 의료장비를 갖춘 관내 동물병원 중 심사를 거쳐 2개소 이상 지정
- 의료비 지원 대상 여부 확인 후 동물 의료서비스 비용 지원
 - 필수진료 실시 후 발견된 질병에 대해 추가 진료 요청 시 선택진료 진행

□ 기대효과

- 취약계층 반려동물의 필수 의료 관리를 통해 장기적으로 동물 건강증진 및 의료비 절감 효과
- 취약계층이 반려동물을 키우며 정서적 안정, 삶의 질 향상 등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 제공

네팔 포카라 임홍길 휴먼스쿨 ‘WT-아시아발전재단 케어스 프로그램’ 개막식 성료



강 석 재

ICKC 이사, 세계태권도연맹 전문위원

세계태권도연맹(WT, 총재 조정원)이 아시아발전재단(ADF, 이사장 김준일) 후원으로 네팔 포카라 인근 비레탄티에 임홍길휴먼재단(이사장 이재후)이 설립한 오지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태권도와 한국어를 가

르치는 ‘WT-ADF 케어스(Cares) 프로그램’ 개막식 행사를 9월 23일 성공적으로 가졌다.

포카라 시내에서 45km 외곽에 위치한 ‘쓰리 비레탄티 세컨더리 휴먼스쿨’(Shree Birethanti Secondary Human School) 운동장에서 열린 개막식에는 조정원 세계태권도연맹(WT) 겸 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ICKC) 총재, 이규석 WT 부총재, 강대권 태권도박애재단 아시아(THF Asia) 총재 그리고 강석재 WT 케어스 프로그램 담당 전문위원이 참석했다. 또한 임홍길 임홍길휴먼재단 상임이사, 프렘 바하두르 타파 비레탄티 세컨더리 휴먼스쿨 학교장 그리고 프라카쉬 슈셔 라나 네팔태권도협회장 등이 주빈으로 참석했다.

‘태권도로 미래를 만들자’라는 슬로건 아래 총 25,000달러 예산으로 ‘WT-ADF 임홍길 휴먼스쿨 케어스 프로젝트’는 비레탄티 중고등학교 학생 87



▲ ‘WT-ADF 케어스’에 참석한 임홍길 대장(가운데)과 조정원 총재(오른쪽에서 두 번째). 맨 오른쪽이 필자.

명을 대상으로 지난 8월 22일 1년간 일정으로 시작했다. 네팔태권도협회에서 현지 태권도 지도자 두 명을 학교에 파견하여 일주일에 네 번, 하루에 한 시간 30분씩 방과 후 수업으로 태권도 훈련을 시키고 있다.

개막식 행사에서 비레탄티 Cares 학생 전원이 지난 1달간 배운 태권도 시범을 합동으로 선 보여 참석자들의 많은 박수를 받았으며, 일부 학생들은 네팔 전통 춤을 보여주었다. 조정원 총재는 “엄홍길 휴먼스쿨 WT-ADF 케어스 프로젝트는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태권도와 한국어를 가르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이러한 케어스 프로그램이 네팔 오지에 위치한 다른 엄홍길 휴먼스쿨과 다른 아시아 국가 학교로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개막식 축사에서 말했다.


조 총재는 “지난 2019년 8월 3일 카투만두 네팔 태권도협회 본부에서 소년원생과 가정폭력 피해 여자 아이 및 여성을 위한 첫 번째 네팔 WT-ADF 케어스 프로그램 개막식을 개최한 바 있으며, 네팔이 다른 어느 나라보다 케어스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조 총재는 “WT는 ADF와 함께 현재 네팔, 캄보디아, 스리랑카, 부탄, 몽골, 키르기스스탄 그리고 동티모르에서 케어스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빠르면 올해 중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에서 케어스 프로젝트를 시작하려고 준비 중이다. 앞으로 엄홍길 휴먼스쿨 케어스 학생들이 자라서 국내 및 국제 태권도 대회에서 챔피언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WT는 서울에 본부를 둔 엄홍길 휴먼재단과 2017년 8월 29일 WT본부에서 태권도와 한국어 세계 보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엄홍길 휴먼재단은 2008년 설립 이래 세계 최초로 한국 산악인 엄홍길 대장이 히말라

야 8000미터 고봉 16좌를 등정한 업적을 기념하기 위해 네팔 오지에 총 16개 엄홍길 휴먼스쿨을 건립해 왔다. 16좌는 통상적으로 알려진 14개 히말라야 8000미터 고봉에, 엄 대장이 14좌에 결코 뒤지지 않는다고 믿는 알룽강(Yalung Kang) 및 로체샤르(Lhotse Shar) 두 고봉을 합친 숫자이다. 비레탄티 중고등학교는 엄홍길휴먼재단이 2013년 설립한 4번째 휴먼스쿨이며, 현재 3개 학교가 네팔 오지에 추가로 건립되고 있다.

엄홍길 상임이사는 개막식 축사에서 “오늘은 조정원 WT 총재가 이곳 비레탄티 휴먼스쿨을 처음으로 방문하신 역사적인 날이다. 엄홍길휴먼재단은 앞으로 이러한 케어스 프로그램이 다른 휴먼스쿨로 확대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아시아 지역 소외계층에게 태권도와 한국어를 통한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한 계획의 일환으로, 2019년 1월 WT와 ADF는 케어스 프로그램 실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ADF가 WT에 1억원을 기부했다. 이어서 ADF가 WT에 2020년 15만불, 2021년에 20만 불 그리고 2022년에 15만 불을 지정 기부했다. 필자가 이사로서 있는 우리 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ICKC)도 본 사업의 일환으로 소정의 태권도발전기금을 매년 후원하고 있다. 앞으로도 케어스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를 바란다. 



▲ 'WT-ADF 케어스' 참석자 전원 기념 촬영

44년 역사의 몬트리올한인학교



정 영 섭

캐나다 몬트리올한인학교 교장

몬트리올한인학교는 캐나다에서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한인학교 중의 하나로 퀘벡주 교육부로부터 처음으로 정식 인가를 받은 학교이다. 개교 당시인 1978년 9월, 몬트리올 지역에는 한인교민이 100여 가구를 형성해서 2세대의 우리말 교육 문제가 교민사회 과제로 급부상했던 시기이기도 했다. 당시 몬트리올대학 생물학과 유전학 교수를 역임하고 있던 나는 한인학교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학교를 설립하기로 결심했다.

우선 주말마다 사용할 장소를 구하는 일이 급선무였는데 다행히 마리아노폴리스 대학(Marianopolis College)을

주말마다 빌릴 수 있었다. 주말 한인학교들이 장소 대여 문제로 자주 학교를 이전하게 되는데 개교 이래 40여 년간 같은 교사(校舍)를 사용한 사실은 아마 전 세계 한인학교 중에서 이례적인 일일 것이다. 1985년에는 퀘벡주 교육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한인학교에서 중고등부 학생들이 한국어 수업을 이수하면 12학점까지 취득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 학점은 한인 자녀들이 초급대학(CEGEP)에 진학할 때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이는 당시 캐나다 전체는 물론 세계 각국에 존재하는 한인학교에서 전례가 없던 일로 퀘벡사회 뿐 아니라 북미지역에 한국의 위상을 높이고 한국어를 널리 알리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2000년에는 현지인을 위한 성인 한국어반 개설과 음악, 무용, 미술, 수학 및 태권도반 등 특별활동반의 대외 활동이 몬트리올지역에 한국의



▲ 몬트리올한인학교가 지난 40여 년간 주말마다 사용하고 있는 Marianopolis College 전경

고유문화를 알리는 데에 커다란 힘이 되었다. 특히 무용부는 몬트리올, 오타와는 물론 토론토지역까지 각종 크고 작은 지역행사에 참가하여 우리의 전통문화를 알리는 데 큰 기여를 했다.

또 하나의 특기할 사항은 한인 후세교육뿐만 아니라 1세들의 현지적응을 위한 프로그램도 꾸준히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1985년부터 성인 영어, 불어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으며 1989년에는 퀘벡정부로부터 정식인가를 받아 불어교사의 급여를 정부로부터 수령하기도 했으며 자국어 강사에게 생활불어를 습득하게 하는 이민자 대상 정부 불어수업(P.A.F.I.)을 도입한 불어강좌가 본교에서 1999년까지 운영되기도 했다. 이후에도 학생 및 성인을 위한 불어강좌는 몬트리올한인학교 내 정식 과정

으로 오늘날까지 운영되고 있으며 많은 교민 및 이민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학부모를 위한 특별 교양강좌도 자녀들의 수업시간과 병행해서 운영했다. 이를 통해 학부모 및 교민들에게 이민생활에 필요한 생활정보나 지식을 제공함은 물론 아동 건강과 영양 및 가정교육 전반에 걸친 전문가의 강의와 질의응답 시간은 이민생활에서 겪어야 하는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일조를 하였다.

지난 40여 년간 학교를 운영하며 6,500명(평균 연간 165명) 이상의 졸업생들을 배출해왔으며 이제는 졸업생을 포함한 많은 2세들의 자녀들이(3세) 본교에 재학하고 있다. 또한 본교에서 수학한 많은 졸업생들이 자긍심 강한 한국계 캐나다인으로서 정치, 경제, 교육, 과학, 의학, 예술, 문화, 법조, 종교,



▲ 2008년 몬트리올한인학교 30주년 기념행사



▲ 2011년 연아 마틴 상원의원 특강

IT 분야 등 각계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지구촌이라 불리워지는 요즘이라도 세계 어디에 나가 살든, 모국어나 모국의 문화를 모르고는 주류사회에서 지도력이나 어떤 영향력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잘 입증해주고 있다. 이는 한국어뿐만 아니라 한국의 고유 민속과 전통문화를 형식적인 교육에 치우치지 않고 체험 학습을 통해 '한국계 캐나다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게 함과 동시에 공동체 의식과 공영공생의 중요함을 인식시킴으로써 21세기 지구촌이 필요로 하는 민주시민의 자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본교의 교육취지로 삼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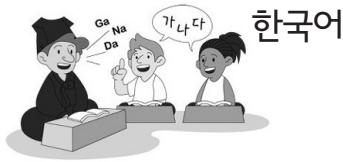
6·25 한국전쟁의 폐허로부터 이룩한 눈부신 경제 성장과 88서울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에 따른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졌고 이에 비례해서 한국과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 또한 꾸준히 증대해 왔다. 오늘날 K-POP과 드라마 등에서 보여지는 한류의 영향은 한인학교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최근 성인 한국어 반에는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외국인이 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커질 것이다. 한국의 발전상과 한국문화를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에 한국문화 발신지로서 한인학교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질 것으로 보여진다. □□□□□□



▲ 몬트리올한인학교 수업 모습 (2011년)



▲ 2015년 봄학기 종업식



미국 워싱턴 ‘해외 현지 초중등학교 한국어 교재’ 보급

워싱턴 지역에서 한국어 강좌를 정규과목으로 채택하고 있는 15개 공립학교에 ‘해외 현지 초중등학교 한국어 교재’가 무상 보급됐다. 이 교재는 한국의 교육부와 국제한국어교육재단이 해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해 최초로 제작한 것으로 한국에서 직접 우송해 9월 초부터 지난 주말까지 모든 학교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학교들을 관할하고 있는 워싱턴 한국교육원의 강경탁 교육원장은 9월 15일 “한국어 교재 무상 지원으로 더욱 체계적인 한국어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지난해 4월 제정된 ‘해외 현지 초중등학교 한국어 교육과’를 기반으로 제작된 이번 교재는 초급과 중급 각 4단계로 구분돼 각 단계별 기본교재, 익힘 책, 교사용 지도서로 구성돼 있다.

워싱턴지역에서 한국어를 외국어 정규과목으로 가르치는 학교는 페어팩스 카운티의 콜린 파웰 초등학교를 비롯해 리버티 중, 센터빌 고, 레이크 브래덕 중고등학교, 페어팩스 아카데미,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의 C.D. 힐튼 고, 메릴랜드 몽고메리 카운티의 노스 웨스트 고, 프린스 조지스 카운티의 엘리노어 루즈벨트 고교 등이다.

[기사 전문 출처] 미주한국일보, 정영희 기자, 2022/09/19

<http://www.koreatimes.com/article/1433181>



▲ C.D. 힐튼 고교의 한국어 강좌를 담당하고 있는 최경미 교사(앞줄 오른쪽 두 번째)가 교재를 받은 후 학생들과 기뻐하고 있다.



태권도로 장애 극복한 태국 소년… “태권도로 삶 바뀌어”

태국에서 장애로 한쪽 팔을 쓰지 못하던 소년이 태권도를 통해 재활에 성공한 사연이 소개됐다. 태국 공영방송인 타이PBS는 8월 7일(현지시간) 주말 스포츠뉴스에서 나타논 시리(11) 군의 소식을 보도했다.

나타논 군은 태어날 때 오른쪽 어깨를 다쳐 신생아 때 4개월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 오른팔 근육이 약하다는 진단을 받은 그는 오른팔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였다. 의료진은 운동으로 치료하거나 성인이 된 후 수술을 받을 것을 권했고, 나타논 군의 부모는 아들의 재활을 위해 태권도를 선택했다. 태권도를 시작하고 나서 팔을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한 나타논 군은 이제 거의 정상인처럼 활동할 수 있게 됐다고 방송은 전했다.

2020 도쿄올림픽에서 태권도로 태국에 유일한 금메달을 안긴 파니팍 윙파타나깃 선수를 존경한다는 나타논 군은 태권도를 하면서 삶이 바뀌었다고 했다. 나타논 군은 검은띠를 획득했으며 태권도 시합에도 출전하는 등 강인한 정신력을 보여줬다. 태국은 올림픽 4회 연속 메달을 따는 등 태권도 강국 반열에 올랐다. 태국으로 귀화한 최영석 감독이 2002년부터 태국 국가대표팀을 맡아 메달리스트들을 배출하면서 태권도의 위상이 한층 높아졌다.

[기사 전문 출처] (방콕=연합뉴스) 강종훈 특파원, 2022/08/08

<https://www.yna.co.kr/view/AKR20220808139300076?section=search>



▲ 태권도로 재활한 태국의 나타논 군

■ 올해 첫 문화탐방 개최 - 겸재정선박물관 등

지난 6월 16일(목), 2022년 첫 문화탐방으로 서울 강서구 ‘겸재 정선 박물관’ 일대를 탐방하였다. 코로나 팬데믹 거리두기가 해제됨에 따라 오랜만에 열린 이번 탐방은 간만에 열린 만큼 스무 분이 넘는 많은 회원 분들이 참석하여 반갑고 즐거운 분위기로 시작되었다. 서울도보관광 프로그램의 ‘양천로에서 만나는 겸재 정선 이야기’ 코스를 문화관광해설사의 해설과 함께 따라가면서, 양천향교, 겸재정선박물관, 궁산명굴전시관, 궁산산책로 등 과거 문화유산의 아름다움과 멋진 자연 풍광을 함께 만끽할 수 있었다. 화창한 날씨에 산책을 겸한 기분 좋은 탐방에 이어 저녁식사를 하며 회원 간 친목을 다진 뒤 해산하였다.



▲ 양천향교 앞에서 6월 문화탐방 참석자 기념촬영

■ 9월 문화탐방 개최 - 경북 문경 국군체육부대 태권도대회 참관 등

지난 9월 15일(목), 2022년 9월 문화탐방으로 경북 문경의 국군체육부대에서 열린 “제31회 국방부장관기 전국단체대항태권도대회”를 ICKC의 여러 회원이 함께 참관하였다. 이번 탐방은 스무 분이 넘는 많은 회원 분들이 서울 교대역에서 오전 8시에 모여 전세 버스로 함께 출발하였다. 버스는 오전 11시 경에 문경 국군체육부대에 도착해 태권도대회 개막식에 제 시간에 참석할 수 있었다.



▲ 대회 현수막 앞에서 참석 회원 단체 기념 촬영

이번 대회는 특전사, 해군, 육군, 해병대 등 각급 부대를 대표하는 태권도 선수단이 서로 실력을 뽐내고 경쟁하는 대회로 각 부대의 명예가 걸린 만큼 다른 어떤 태권도 대회보다 열기가 뜨겁고 흥미진진했다. 이번 대회를 주최한 대한태권도협회의 양진방 회장이 개회사를 통해 특별히 참석한 ICKC 임원진 및 회원들께 감사를 표했고 ICKC도 이에 화답하여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축하했다.

개막식이 끝난 뒤, ICKC의 위호인 이사장, 박의근 재정위원장을 비롯해 강성구 고문, 김용구 고문, 전영섭 감사, 이석복 예비역 소장 등 회원이 함께 ICKC를 대표하여 김동열 국군체육부대장에게 소정의 장병 격려금 및 텀블러 등 기념품 전달식을 가졌다. 김동열 국군체육부대장은 장병 사기 진작을 위해 본 격려금을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감사를 표했다.

(사)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 활동 소식

점심식사 뒤 문경새재도립공원 내에 위치한 “옛길박물관”으로 향했다. 옛길박물관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길’을 테마로 한 공공박물관으로, 문경새재로 유명한 문경의 정체성 및 우리나라의 길과 지도에 얽힌 여러 역사적, 인문학적 배경 지식을 풍성히 알려주는 흥미롭고 훌륭한 곳이었다. 문경시 문화해설사의 해설을 들으며 박물관 곳곳을 살펴보고 답소하면서 즐겁게 탐방을 마쳤다.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는 ICKC 운영위원인 윤문원 작가가 이번에 전무이사로 취임한 청주산업단지관리공단을 들렀다. 청주산업단지관리공단은 SK하이닉스, LG생활건강 등 국내 굴지의 회사가 입주해 있는 청주산업단지를 관리하는 공단으로서 새롭게 취임한 윤문원 전무이사 격려 및 답사를 겸해서 방문하였다. 윤문원 전무이사는 ICKC 회원들을 환대하였고 서로 축하하고 격려하면서 저녁식사까지 한 뒤 서울로 향했다. 서울 교대역에 밤 10시경에 도착했고, 뜻 깊은 문화탐방을 무사히 마쳤다.



▲ 위호인 ICKC 이사장이 김동열 군인체육부대장에게 장병 격려금을 전달하고 있다.

2022년 후원하여 주신 분

2022년, 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 활동을 위해 보내주신 관심과 후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내주신 후원금이 헛되지 않도록 소중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강영광, 강영실, 강제근, 고륜희, 고용규, 구병진, 구철회, 김건길, 김복음, 김소진, 김영규, 김용구, 김용준, 김은자, 김정수, 김정일, 김정택, 김종근, 김진원, 김진태, 김창옥, 김형중, 김호일, 김홍석, 노승락, 문경태, 박경명, 박기연, 박미나, 박미화, 박순호, 박원출, 박청수, 배대환, 성효동, 송수식, 양경옥, 유영찬, 유자호, 이명우, 이병욱, 이상철, 이석중, 이성호, 이영섭, 이용선, 이창걸, 이항구, 이현목, 이효정, 이호진, 장정용, 전영섭, 정경수, 정상실, 정영숙, 정진화, 정현관, 조춘연, 조평규, 추호석, 표재순, 허원준, 홍경자, 홍계화, 홍미자, 황경애, (주)동우들, (주)동일고무벨트, (주)루이제, (주)비이다빈치, (주)세협엔터프라이즈, 수풍산업(주), (주)신동, 양양운수(주), (주)에이젠코어, (주)포스젯한도, (주)포스코, (주)포스코ICT, (주)P&H 가나다순, 가나다순, 2022년 1월 1일 ~ 2022년 8월 31일까지

총액 : 76,080,000원

후원금 보내 주실 곳

신한은행 100-027-567461 국민은행 068801-04-248856 예금주 : (사)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

※ 본회는 기획재정부가 승인한 지정기부금 단체(기획재정부 고시 제2018-17호)입니다. 여러분이 내신 후원금은 '지정기부금'으로, 개인의 경우 「소득세법」 제34조 및 제59조의4에 의해 소득금액의 30%를 한도로 기부금의 15%(1천만 원 초과분은 3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고, 법인의 경우 「법인세법」 제24조에 의해 법인 소득금액의 10% 한도 내 전액 손비 인정됩니다.

(사)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

International Center for Korean Culture(ICKC)

2011.08.16. 사단법인 인가 (문화체육관광부 제2011-29호)
2012.10.02.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2-166호)
2018.06.29. 지정기부금 단체 재지정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8-17호)

조직 구성	고문	강성구 前 MBC 사장 박갑수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조남철 前 한국방송통신대 총장 표재순 前 문화융성위원회 위원장	김용구 (주)신동 회장 박관용 前 국회의장 최불암 예술인
	총재	조정원 세계태권도연맹 총재	
	이사장	위호인 (주)뉴플러스컴 회장	
	이사	강석재 세계태권도연맹 전문위원 조춘연 정일세무법인 대표세무사	박의근 재정위원장, (주)P&H 회장
운영위원	심의표 前 KBS 부산총국장 이효정 세계한인여성협회 회장 장정용 (사)한국이집트발전협회 수석부회장	윤문원 작가, 인성교육 전문가 이호진 前 주한호주대사관 호한재단 사무총장 정순영 前 국회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감사	전영섭 변호사	박원출 前 한국조폐공사 사장

주요 활동 내역

- 2012년 조선족 자치주 설립 60주년 행사 연길 방문
- 2013년 서독 광부 파견 50주년 행사 개최
- 2014년 고려인 이주 150주년 기념 연해주 방문
- 2015년 파독(派獨) 광부와 간호사들의 땀과 눈물을 기리고 한·독 교류를 증진하고자 독일 뉘스라켄에서 한국음악회 공연
- 2017년 고려인 강제이주 80주년 우즈베키스탄 방문 및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께 태권도 명예 9단증 수여 · 타슈켄트 대학 태권도학과 신설 약속
- 2018년 저개발 국가의 태권도 · 한국어 교육을 위해 세계태권도연맹 등과 업무협약 체결 및 캄보디아 태권도 발전기금 전달, 타이페이 세계태권도품새선수권대회 참관
- 2019년 네팔 태권도 발전기금 전달, 면암 최익현 선생 묘소 참배
- 2020년 스리랑카 태권도 발전기금 전달
- 2021년 다문화가정 청소년 태권도장 등록 원비 지원 사업
- 2022년 대한태권도협회(KTA)와 전국 태권도장 수련생들의 동물사랑 · 생명존중 교육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이외 재외동포유학생 장학금 수여, 정기적인 소식지 발간(분기별) 및 국내 · 외 문화탐방, 포럼 및 세미나 개최 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ICKC는 한국어와 태권도를 중심으로 한국문화의 국제교류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2022년부터 세계태권도연맹, 대한태권도협회, 서울특별시수의사회와 함께 전 세계 태권도 수련생을 대상으로 '동물사랑 · 생명존중 운동'을 의욕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후원을 바랍니다.

☆ **친환경 철강**의 시대, 누가 펼치고 있을까?

지구의 환경까지 생각하는 철을 만드는 일,
친환경 시대를 준비하는 포스코의 사명입니다

수소환원제철 기술로 탄소 발생 없이 철을 만들고
그 철로 친환경 에너지를 생산, 다시 재활용까지-

친환경 철강의 시대, 포스코가 펼쳐가고 있습니다

**인류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선도하는
글로벌 비즈니스 리더**

Green Tomorrow, **With POSCO**

posco

